

도돌이표 100억 건물 매입 논란 돌파구 있나

부동산 가격 등 잇단 성명에
문제제단 뒤늦게 해명 나서
“개별공시지가 꾸준히 상승
건물 가치 하락 설득력 없다”
경실련 측 제차 “터무니없어”



제주아트플랫폼 조성 사업과 관련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시 원도심 재밋섬 건물 전경.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을 위한 제주시 원도심의 부동산 매입 가격 100억원에 대한 입장을 뒤늦게 내놓은 가운데 지역 사회를 설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문제제단은 19일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재밋섬 건물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2017년 9월 이래 그간의 추진 경과와 건립의 타당성,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부동산 매입 가격의 적정성 등에 대한 문제제단 측의 공식 해명 자료가 제시됐다.

문제제단은 해당 자료에서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은 상관 관계

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최근 5년간 개별공시지가가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서 건물 가치가 하락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전했다. “2011년 법원경매에서 5차까지 유찰되어 140억원 감정가격이 24억원까지 떨어졌던 건축물”이라는 제주경실련의 지난 8일 성명 내용에 대해선 “2009년 12월 144억원으로 경매 개시 후 총 4회 유찰로 당초 금액의 24

%인 2011년 8월 34억원까지 간 적이 있지만 24억원이 낙찰 가격이거나 최저 유찰 금액이었던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계약금 2억원과 위약금 20억원의 경우엔 2019년 1월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같은 해 10월 검찰 수사 결과 '문제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고 했다. 감정평가 결과 '다소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존 감정평가의 타당

성과 신뢰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재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 또는 책임도 없다”며 “재감정평가의 결과가 기존 매매계약에 영향을 줄 수도 없으므로 재감정의 실익은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기자 간담회 현장을 찾은 제주경실련 관계자는 제차 “터무니없는 가격”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오늘 문제제단 자료에도 있듯, 2014년 4월 감정평가액이 130억원대였으나 2014년 9월 매매가는 47억원이었다”며 “경매에서 24억원에 낙찰되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맞섰다.

제주아트플랫폼은 2017년 9월 당시 170억원이 적립된 '제주문제제단 육성기금의 합리적 운용 방안 모색' 주제 문화정책 포럼을 시작으로 재밋섬 건물을 매입해 시설을 세우는 방안이 추진됐다. 하지만 해당 건물 매입의 적정성, 도민 공감대 부족 등 논란의 와중에 도감사위원회 감사, 검찰 조사가 이어졌고 지난 2월엔 타당성검토위원회의 '조건부 추진' 의견이 발표됐다.

뚜벅이 캐릭터로 기록한 오늘의 초상

현덕식 열 번째 개인전
서귀포 예술공간 파도



현덕식의 '나만 믿어'.

혼자 상상하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아이라는 '뚜벅이' 캐릭터를 등장시켜 이 시대의 초상을 그려온 제주 현덕식 작가. 이번에도 '뚜벅이'란 이름을 달고 서귀포시 예술공간 파도(소암로 29)에서 그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다.

이 전시는 현 작가의 열 번째 개인전이다. 그는 제주 옛 석공들이 돌로 깎아 만든 돌하르방 얼굴이 떠오르는 투박한 뚜벅이가 전하는 말을 화면에 실어 나른다. '최고', '보지 마', '듣지 마', '말하지 마', '나라! 니가 먼저 나라!', '나만 믿어' 등이다.

가까운 이에게 말하듯 하는 그림의 제목들은 직설적으로, 때론 반어법으로 다가온다. 최고만을, 일등만을 기억하는 현실에서 뚜벅이가 고개를 꺾은 채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운 화면이 등장하는 '최고'는 서글픈 보인다.

보지 말고('보지 마'), 듣지 말고('듣지 마'), 말하지 말라('말하지 마')는 나날들에 희망은 있을까. 세월호가 연상되는 한 배에 오른 뚜벅이들의 '나만 믿어'라는 말이 언제면 진심이 되어 어린 영혼들을 다독이는 날들('이젠 자유롭게 훨훨 날아요')이 올까. 작가는 장지에 먹, 안료, 염료, 수점물질을 이용한 작업으로 신뢰와 연대의 사회를 꿈꾸는 오늘을 기록해 놓았다. 지난 1일 시작된 전시는 이달 23일까지 계속된다. 전선희기자

“사찰 의혹…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재밋섬 매입 건 의견서 제출
예술인 피해 대책위 입장문

제주시 원도심 재밋섬 건물 매입 건에 대해 지난달 22일 제주도의회에 의견서를 냈던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 내역 제출 요구(4월 1일자 8면)와 관련 해당 문화예술인들이 “안창남 제주도의원의 진정 어린 사과와 도의회 차원의 재발 방지대

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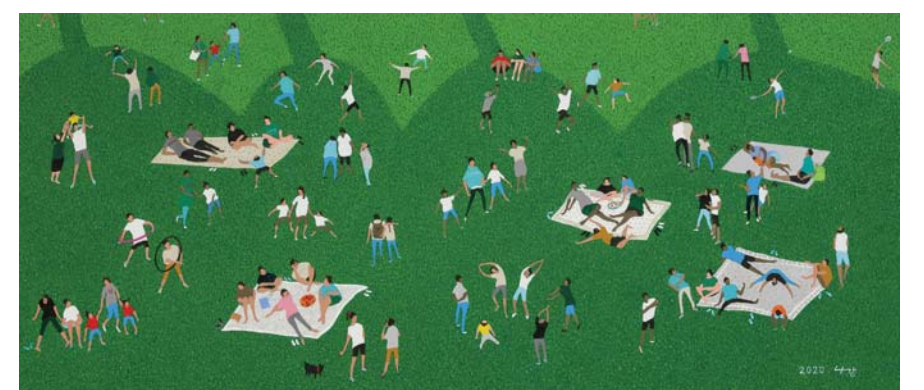
이들은 19일 '제주문화예술인 사찰 의혹 피해자 대책위 일동'으로 낸 '안창남 도의원의 제주문화예술인 사찰 의혹에 대한 피해 예술인 입장문'에서 “안창남 의원은 도의원의 신분을 이용해 제주도와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을 대상으로 연명에 서명한 문화예술인들의 5년간 보조금 지원 내역과 정산 내역의 제출을 요구했다”면서 “이 사

실이 알려진 후 도의원의 권한 남용에 대한 제주시민단체연대회의 등 시민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안창남 의원은 사과는 커녕 자료를 추가 요청하는 등 뒷조사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화예술인들의 현안에 대한 의견 표명을 제주도의 보조금 혜택과 연관됐다고 추론하며 이 부당한 사찰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문화예술인에 대한 모독이자 도의원의 권한을 넘어선 권력 남용”이라며 “지역의 문화예술인에게 보조금이라는 지원 제도가 창작 활

동에 불가피한 조건이 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 약점을 불모로 삼아 문화예술인들의 생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불순한 시도를 목도하며 담당함과 참담한 심정을 가늘 길이 없다”고 했다. 특히 “이번 행태를 용납한다면 앞으로 문화예술인들이 제주의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낼 경우 권력기관으로부터 낙인찍힐 것이라는 암묵적 공포를 불러 일으켜 침묵을 강요당할 것이고, 결국 여론이 왜곡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선희기자 sunny@halla.com



나경의 '휴식'.

잠시 침표 찍고 추억의 일상을 보다

나경 작가 서울 초대전
강북삼성병원 갤러리

코로나19 시대, 그가 떠올린 건 그저 무심히 보냈던 일상이다. 가까운 공원로나 나가 자리를 깔고 누워 수도를 떨거나 운동하던 날들이 있었다. 눈송이처럼 벗꽃이 날릴 때면 꽃을 보러 당연하게 나들이를 떠났다. 그런 장면들을 추억처럼 불러내는 일은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바이러스를 건디는 힘이 되었다.

제주에서 작업하는 나경 작가가 이 같은 마음을 그림에 실은 작품을 서울에서 선보이고 있다. 강북삼성병원 나눔갤러리 초대로 열리고 있는 '휴식' 주제 개인전이다.

이 전시엔 녹음이 짙은 그림이 펼쳐진다. 작가는 자연과 일상의 아름다움을 순간적으로 포착하고 대상의 특징과 의미를 다양한 색채로 형상화했다. 하늘 위에서 지상을 바라보는 듯한 시점의 화면 구성은 공간감과 몰입감을 부여하고 그 안에 삼삼오오 거니는 인물들에서 행복감이 전해진다. 장준석 평론가는 이번 작품에 대해 “열릿 평범한 작업처럼 보이면서도 누구도 모방하기 어려운 독특한 화풍으로 이루어진 순도 높은 조형성을 담고 있다”고 평했다.

나 작가는 “소소한 순간에서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에 집중하였고, 행복함을 담아내었다”고 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전시는 5월 31일까지 두 달간 이어진다. 전선희기자

천지연 일대 문화재와 함께 즐기는 8경

2021서귀포문화재야행
7월, 10월 두 차례 걸쳐

사단법인 제주마을문화진흥원(이사장 안정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문화재청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으로 '2021년 서귀포문화재야행'을 진행한다.

이번 서귀포문화재야행은 7월 30일~31일, 10월 8일~9일 두 차례에 걸쳐 천지연폭포와 서귀포항 일원에서 펼쳐진다. '신들의 정원, 서귀포!'라는 부제 아래 야경, 야시, 야식, 야로, 야화, 야설, 야사, 야숙 등 '팔야(八夜)'를 구성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야경'은 서귀포총패류화석 산지

와 세계 최대의 연산호 군락지인 문섬의 바닷속 문화재를 잠수함을 타고 만끽하는 프로그램이다. '야시'는 과거 임금에게 올렸던 진상품, 오늘날 제주특산물과 공예품을 판매하고 체험하는 프리마켓으로 거상 김만덕의 삶을 기리는 의미로 마련된다. '야식'은 '야시'에 나오는 제주특산물을 주 재료로 한 요리경연대회로 관광객들이 직접 시식하고 평가한다. '야로'는 왕복 약 1.2km의 연외전을 따라 걷는 달빛 밤길을 일컫는다. 탐라

순력도를 병풍 형식으로 구성한 야외 전시인 '야화', 제주해녀문화를 소재로 빛을 공인 작품인 '야사', 해녀들이 사는 집에서 숙박하며 그들의 삶을 체험해보는 '야숙'도 잇따른다.

안정업 이사장은 “천지연 폭포 일대 문화재의 회귀성과 서귀포 야경의 아름다움에 프로그램의 독창성을 더해 지역특화 관광상품으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만들고자 한다”며 “여행사와의 협업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선희기자

축 임
CONGRATULATIONS

제주불교신문 사장



강규진
(선진인쇄사 대표)

제주불교신문 사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동부경찰서 보안자문협의회
회장 박상대 외 회원일동

축 임
CONGRATULATIONS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장



강동훈
제주특별자치도렌터카조합 이사장
한라산렌터카(주) 대표이사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제13대 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렌터카조합
조합원 일동

CAFE 3535.1

한리일보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아이, 그리고 반려견과 함께 가기 좋은 카페



점장: 강지혜 010-8263-486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함덕리 3535-1(함덕2길 82)